



다양한 물리적 사회적 변화로 인해 어린 아동에게 심리적 혼란을 주기도 한다. 아울러 또래나 교사 등 가족 이외의 사람들로 사회생활의 영역이 질적·양적으로 확대되면서 이에 따른 적응상의 문제를 보이기도 한다(Stipeck, Feiler, Byler, Ryan, Milbaurn, & Salmon, 1998).

무엇보다도 학령 초기의 적응은 이후 전반적인 학령기 적응을 예측해 주므로, 아동기 주요 발달 과제가 된다(Brody, Murry, Kim, & Brown, 2002; Ladd & Troop-Gordon, 2003). Ladd, Kochenderfer, 그리고 Coleman(1996)에 의하면 학교적응은 아동이 학교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학교생활의 안락함을 느끼고, 전반적인 학교생활 영역에서 성공을 이루는 것으로서 이러한 각 영역의 성공은 이후 교육적 진보의 중요한 전조가 된다. 따라서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학교 적응에 대한 관심이 강조되고 있다.

아동은 학교생활을 통해 환경을 변화시키고 동시에 학교의 요구에 따라 자신을 변화시킴으로서 학교와 자신 사이에 균형을 이루는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과정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 이런 경험들은 아동이 다양한 환경과의 조화로운 상호작용과 성공적인 관계를 형성하게 함으로써 교사나 다른 또래와 같은 의미있는 타인과의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해가며 학교규칙에 순응하면서 독립된 한 개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게 해준다(류윤석, 1996). 그러므로 아동의 성장과정에서 학교생활이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

만약, 아동이 학교생활을 잘 적응해 나가지 못할 경우, 불만과 불평, 절망, 무능력, 자포자기 등의 부정적 감정을 갖게 되고, 비행행위를 일삼게 되며, 공격적, 파괴적 행동을 보이거나 혹은 지나치게 소극적인 행동을 보이게 됨으로써 자아개념과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학교생활 뿐 아니라 자신에게도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게 된다(Barbe 1983; Heck, 1983; Ladd, et al., 1996). 이러한 학교부적응으로 인해 초등학교생의 문제가 광범위하고 심각한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차유림, 2001).

이러한 맥락에서 초등학생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는 학교적응에 대한 연구가 세 가지 측면에서 진행되어 왔다. 첫째는 아동 개인의 특성과 학교 적응 간 상관관계 등을 살펴보았는데(고근중, 2006; 한미라, 1997), 가령, 자아탄력성이 높은 아동들은 낮은 아동에 비해 학교적응 수준이 높았다.

둘째는 아동과 관련된 환경과 학교적응 간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가족 구조, 부모자녀 의사소통, 부모양육태도, 가족 응집성, 가족 적응성 등의 가족 특성과 학교 적응 간 관계를 살펴보았거나(박수정, 1998; 서명성, 1998), 아동의 학교환경과 학교적응 간 관계를 살펴보기도 했다(유선이, 1999).

셋째는 학교적응과 관련된 변인을 개인적 특성과 환경적 특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김승봉(2005)의 연구에 의하면 부모의 학력이나 연령, 월소득, 어머니의 취업 여부 등이 학교적응과 관련을 보였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정서표현성과 학교적응 능력 간 관련이 있음이 보고되었고(윤영란, 2005), 아동에게 의미있는 대상들의 사회적 지지가 아동의 학교적응과 높은 관련을 보이기도 했다(차유림, 2001).

그러나 학교적응에 대한 연구는 아동 개인, 가정, 학교의 세 영역을 동시에 측정하여 진행되어야 함이 강조되고 있다(Barbara, & Martha, 1999).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진행된 연구들은 아동의 학교적응과 관련되는 요인 한두 가지와 학교적응 간의 단편적인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 간의 상호 관계나 요

인 간 상대적 설명력을 고려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무엇보다도 한 개체의 발달은 이전 시기의 경험으로부터 비롯되므로 어떤 한 시점에서의 적응 여부는 이전에 경험한 것을 살펴보는 중단적 연구 설계가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기 때의 경험과 입학 후 적응 간 관련성을 알아보는 것이 매우 의미로울 수 있다.

초기 학교적응에 영향력이 있는 요인으로 학령 전 아동의 문제행동을 들 수 있다. 학령 전 아동기의 심각한 정서행동 문제가 이후 아동기 혹은 청소년기의 심리장애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결과들이 제시되고 있어서(Hofstra, van der Ende, & Verhulst, 2002; Mesman & Koot, 2001; Prior, Smart, Sanson, & Oberklaid, 2001), 중단적 접근에서 아동기의 심리적 적응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어린 아동들의 문제행동들의 상당수는 일시적이고 자연스럽게 해결되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학령기(Campbell, Pierce, Moore, Marakovitz, & Newby, 1996; Shaw, Winslow, & Flanagan, 1999) 혹은 성인기까지 지속되기도 한다(Moffitt, 1993). 즉 학령 전 아동기의 부적응은 사회의 구성원으로 요구되는 다양한 유능성의 발달을 방해한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Leblanc, Boivin, Dionne, Brendgen, Vitaro, Tremblay와 Perusse(2008)에 의하면 걸음마기 때 문제행동을 많이 보인다고 어머니에 의해 보고된 어린 아동들은 만 6세-7세경 교사에 의해서도 문제행동을 많이 보인다고 평가되었다. 2세-11세 까지 문제행동의 개인별 변화 양상을 분석한 또 다른 연구(Cote, Vaillancourt, LeBlanc, Nagin, & Tremblay, 2006)에 의하면 연구대상 중 16.6%에 달하는 아동들이 일관되게 높은 수준의 문제행동을 보였다. 즉 걸음마기 때 문제를 많이 보인 유아들이 초등학교 입학 후에도 높은 수준의 문제행동

을 보였다.

이런 연구 결과를 통해 학령 전 아동기 때 문제행동을 많이 보인 어린 아동들은 입학 후 학교생활에서도 문제행동을 유발시킴으로써 학교 적응상의 문제를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따라서 학령 전 아동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며, 이런 탐색에서 추출되는 요인들의 통제는 이후 학교적응과 관련될 수 있는 요인들을 간접적으로 통제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아동기 문제 행동 등과 같은 심리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환경적 변인은 부모의 양육행동, 부모의 병리 및 빈곤 가족의 구조적 결손 등으로 알려져 왔으나(Williams, Anderson, & McGee, 1990), 무엇보다도 어머니의 양육 행동과 아동의 문제행동간 관련성이 주목받아 왔다(Deater-Deckard, 2001; Frosch, & Mangelsdorf, 2001; Hart, Dewolf, & Burts, 1992).

Parker(1983)에 의하면 과잉 통제적 양육행동은 아동기 사회적 위축과 같은 내재화 문제 행동과 관련을 보였다. Rubin과 Mill(1990)의 연구에서도 내재화 문제를 가진 아동의 어머니들은 자녀에 대해 과잉관여 및 과잉통제의 양육 행동을 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런 양상은 초등 1학년 아동, 좀 더 나아가 아동 그리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Rapee, 1997).

최근 연구(Kim, Ge, Brody, Conger, Gibbons & Simons(2003)에서는 부모의 적대적이고 거부적인 양육행동이 외재화 문제행동은 물론이고 내재화 문제 행동과도 관련이 있었다. 아울러 엄격하고 과잉통제적인 부모 양육행동도 내재화 뿐 아니라 외재화 문제와도 관련을 보였다(Keily, Lofthouse, Bates, Dodge, & Pettit, 2003). 즉 적대적이고 거부적 양육 행동과 지나치게 엄격하고 과잉 통제하

는 양육방식은 내재화 및 외재화 문제 등에 영향을 주었다. 또 다른 종단연구(Shaw, Owens, Giovannelli, & Winslow, 2001)에서도 적대적 부모 양육 방식에서 성장한 걸음마기 유아는 초등학교 입학 시기에 높은 수준의 문제행동을 보이는 부적응적 특성을 나타냈으며, 양육태도가 통제적일수록 어린 아동의 내재화·외재화 문제 행동이 높게 나타난다고 보고되었다(Aunola, & Nurmi, 2005).

Miner와 Clarke-Stewart(2008)의 연구에서는 2세부터 9세에 걸쳐 종단적으로 문제 행동의 변화 양상을 알아보았는데, 유아는 까다로운 기질 특성을 가지고 있어도 어머니의 엄격한 양육행동에서만 문제행동을 지속적으로 보였으므로, 부모 양육행동의 특징이 유아의 문제행동의 지속여부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임을 지적했다.

걸음마기 유아를 대상으로 한 국내연구에서도 어머니의 양육 방식이 방임적이고 과잉반응적일수록 유아의 문제행동 수준이 높게 나타났으며(진수연, 2002), 거부적이고 통제적인 양육 방식이 유아의 문제행동을 야기시킨다고 보고했다(손소영, 2004). 이처럼 국내·외 여러 연구에서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 방식이 유아의 문제 행동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런 부모 양육을 포함하는 환경의 부정적 영향은 아동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Cowen, Work, & Wyman, 1997). 즉 아동 자신을 둘러싼 환경을 해석하고 이에 따라 적절히 반응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아동 개인적 특성이 아동의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Kauffman, 1997). 결국 아동의 행동문제는 가족환경 및 아동 개인적 특성 간의 복잡한 상호작용의 결과일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아동의 개인적 특성은 아동이 직면하는 사회적 상황에서의 적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추론해 볼 수 있다.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동에게 요구되는 대표적인 특성으로 사회적 유능성을 들 수 있는데, 이는 특정 영역에서 정상적으로 간주되는 그리고 환경적 맥락에서 정상적으로 간주되는 발달 과제를 성공적으로 성취시키는 능력으로 정의된다(Garmezy & Masten, 1991; Masten & Coatsworth, 1998). 즉, 사회적 유능성은 아동들이 자신이 속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신의 정체성과 역할에 대해 학습하고 또래와 긍정적인 관계 내에서 잘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다(Raver & Zigler, 1997).

Rubin 등(1995)은 사회적 유능성을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타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개인적 목표를 성취하는 능력으로, Masten과 Coatsworth(1998)는 아동들로 하여금 발달과 적응을 효과적으로 하며 가정, 학교, 지역사회에서 책임감 있는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는 요인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처럼 사회적 유능성은 사회적 상황에서 적절한 수단을 사용하여 목표를 달성하고 긍정적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능력이며, 이런 사회적 유능성의 증진은 아동 부적응적인 행동의 감소와도 관련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Ford(1982)에 의하면 사회적 유능성은 문제해결의 기술, 자기 효능감, 환경적 지지 등의 여러 보호요인을 포괄하는 개념으로써 높은 수준의 사회적 유능성을 성취한 아동은 학교와 가정에서 갈등을 덜 경험하고 스트레스가 많은 환경에 노출되었을 때도 효율적으로 대처하나, 사회적 유능성이 결여된 아동은 학업적 실패, 공격적 행동등과 같은 학교생활 부적응과 더 연루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Hernandez(1993)도 높은 사회적 유능성을 가진 아동이 그렇지 못한 아동보다 사회적 소속감, 지적 수준 및 자존감이 높으며 효과적인 대인관계 기술도 가지고 있어 학교 부적응이나 반사회적 행

동 등에 대해 덜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했다. 이처럼 아동이 사회적 유능성을 발달시키지 못할 때 적응 상의 문제를 가질 수 있다(Brody et al., 2002).

이러한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은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발달된다(Hartup, 1983). 부정적인 양육태도에서 성장한 아동들은 낮은 사회적 유능성을 보인다. 가령, 거부적일 때 자녀들은 타인이나 또래에게 공격적이며 비협조적 및 적대감을 보이며(Rohner, 1991), 과잉통제를 하는 부모의 자녀들은 사회적으로 두려움을 가지며 위축된 행동 및 수줍음을 보였다(Rubin, Cheah, & Fox, 2001). 이처럼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행동은 낮은 사회적 유능성(Rohner, 1991)과 긍정적 양육행동은 높은 사회적 유능성(Dekovic & Janssens, 1992)과 관련을 보였다.

지금까지 학령초기의 적응이 발달적 관점에서 가지는 중요성이 언급되었고, 이런 초기 학교적응과 관련될 수 있는 변인으로 학령 전 아동의 문제행동과 어머니의 양육태도 및 학령 초기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학교적응에 대한 연구의 대부분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초등학교 아동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관련변인을 알아보는 연구는 많지 않다. 특히 학령 전 아동기 때 경험과 입학 후 아동의 학교 적응과의 관련성을 종단적으로 알아보는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이런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초등 일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초등학교 입학 전 시기와 이후 시

기의 경험에 대한 단기 종단적 분석을 통해 초기 학교 적응과 관련된 변인을 탐색하고자 한다.

어린 아동을 대상으로 한 기존 연구의 대부분이 주로 어머니 중심 보고를 통해 측정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 아동, 그리고 학교 교사 각각을 대상으로 질문지와 면접 등을 통해 다각적으로 변인을 측정하여 학교적응과의 관련성을 알아보려고 한다. 선행연구들에 근거하여 <그림 1>과 같은 개념 모형을 제시하여 2가지 측면에서 학교적응의 예언 변인들 간 관련성을 알아볼 것이다 첫 번째로, 6세 경,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태도, 아동의 문제행동과 7세 경,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과 학교적응 간 어떤 관련성이 있는가? 두 번째로, 양육태도, 문제행동, 사회적 유능성이 어떤 경로로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가?

## 방법

### 연구대상

연구대상 아동들은 한국재단의 2005년 중점 연구과제인 [빈곤이 취학 전 아동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종단 연구]에 참여하는 아동들 중 일부이다. 6세와 7세 모두 참여한 아동은 100명이나, 4개 변인을 종단적으로 어머니와 아동, 그리고 아동의 학교 담임교사를 통해 측정하는 과정에서 모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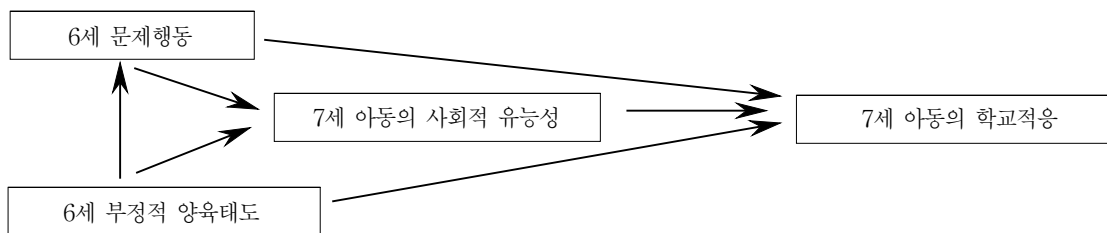


그림 1. 초등 일학년 아동의 학교적응에 관한 인과적 모형

과정에 참여한 아동은 총 54명이다. 서울, 인천, 기타 경기 지역에 거주한다. 이 중, 남아가 25(46.3%) 명이고 여아가 29명(53.7%)이다. 6세를 기준으로 부모의 평균 연령은 아버지는 38세이고 어머니는 36세이다. 아버지의 24.1%가 고졸, 13%가 전문대졸, 14.8%가 대졸이었으며, 어머니의 14.8%가 고졸, 24.1%가 전문대졸, 46.3%가 대졸이었다. 가계 수입은 평균 332만원(SD=274.44)이었다.

### 측정도구

#### 문제행동(Preschool Behaviour Checklist: PBCL)

5-6세 아동의 문제행동을 판별하기 위해 McGuire와 Richman(1988)에 의해서 개발된 취학 아동 행동 목록표(PBCL)를 황혜정(1998)이 번역한 것을 사용하였다. 2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6개 행동 영역으로 구분된다. 각 문항은 0, 1, 2점의 3점 척도로 평가된다. 전체 점수의 범위는 0점에서 44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문제행동을 많이 보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황혜정의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의 신뢰도 계수는 .85이다. 본 연구에서는 6가지 행동영역 중, 품행문제, 집중하여 건설적으로 놀이하는 능력, 발버둥거리며 떼쓰기는 외재문제행동으로, 정서적 문제, 사회적 관계 문제는 내재문제행동으로, 언어·습관·대소변 문제는 미성숙문제행동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외재화 행동 문항의 신뢰도 계수는 .75, 내재화 행동 문항의 신뢰도 계수는 .41, 미성숙 행동 문항의 신뢰도 계수는 .61이며, 전체 문항의 신뢰도 계수는 .74이다.

#### 양육태도(Parental Acceptance-Rejection Questionnaire: PARQ)

어머니의 양육 스타일을 측정하기 위하여 Rohner

(2005)가 개발한 척도를 번안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온정/애정, 공격성/적대감, 무시/무관심, 거부, 그리고 통제 5개 요인에 대해 2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점 척도로 평가되고 문항의 신뢰도 계수는 .63이다. 본 연구에서는 온정/애정 영역을 역코딩하여 비온정/비애정적 양육태도를 측정하였다. 5개영역의 점수를 모두 합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더 부정적 양육태도를 갖는 것을 뜻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29문항의 신뢰도 계수는 .85이다.

####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

아동의 사회적 특성을 이해하고 사회적, 심리적 적응을 예측할 수 있는 특성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한미현(2005)이 사용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50문항으로 구성되어 5점 척도로 평가된다. 한미현의 연구에서 사용된 각 하위 영역 문항의 신뢰도 계수는 사교성이 .86, 대인적응성이 .86, 사회참여도가 .91, 주도성이 .90, 인기도가 .91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50문항의 전체 신뢰도 계수는 .95이며, 각 하위영역 문항의 신뢰도 계수는 사교성이 .82, 대인적응성 .81, 사회참여도 .85, 주도성이 .82, 인기도가 .79이다

#### 일학년 학교적응

지성애와 정대현(2006)이 개발한 척도로, 담임 교사를 통해 초등1학년 아동의 학교 적응을 측정하며, 총 35문항으로 5점 척도로 평가된다. 입학 후 3-4개월 후 각 담임 교사에게 질문지를 통해 아동의 학교적응을 측정했다. 지성애와 정대현(2006)연구에서 사용된 각 하위영역 문항의 신뢰도 계수는 학교생활 적응이 .97, 학업수행적응이 .96, 또래적응이 .96, 교사적응이 .84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의 전체 신뢰도 계수는 .95이며, 각 하

표 1. 각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n=54)

변인	평균	편차	점수 범위
부정적 양육태도	53.89	8.51	35-73
문제행동	27.26	3.88	22-40
외재문제행동	11.33	2.40	8-19
내재문제행동	10.59	1.78	8-18
미성숙	5.33	0.97	3-10
사회적유능성	169.19	35.43	101-240
사교성	33.83	8.65	18-50
대인적응	35.00	7.77	24-50
사회참여	36.70	8.58	14-50
주도성	32.48	8.00	18-50
인기도	31.13	7.93	13-46
학교적응	137.20	20.23	87-175
학교생활적응	44.80	7.84	28-55
학업수행적응	41.94	8.08	21-55
또래적응	30.44	5.02	20-40
교사적응	20.02	3.33	12-25

위영역 문항의 신뢰도 계수는 학교생활적응이 .93, 학업수행적응이 .92, 또래적응이 .88, 교사적응이 .79이다.

### 절차 및 분석

아동의 문제행동과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2008년 6-9월(6세)에 측정되었으며, 이후 2009년 7-10월(7세)에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과 아동의 학교적응이 측정되었다. 변인들의 측정은 어머니 보고, 아동면접, 그리고 교사 보고를 통해 실시되었다.

6세 때 각 아동의 가정으로 인구통계학적인 변인(6세)을 측정하는 설문지와 6세 때 아동의 문제행동과 어머니 양육태도를 측정하는 설문지가 발송되었고, 어머니가 직접 작성 한 후 반송하였다. 7세 때 아동들은 본 실험실에 와서 면접을 받았고, 면접을 통해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이 측정되었다. 아동의 학교적응을 측정하는 설문지는 아동이 입학 후 4개월이 지난 다음, 아동의 각 학교 담임교사에게 질문에 대한 설명서와 같이 발송되었다. 아동의 학교생

활에 대한 전반적인 적응 상태를 관찰한 후 담임교사들은 아동의 학교적응에 대한 설문지를 작성한 후 반송하였다.

아동의 학교적응과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태도, 아동의 문제행동,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Pearson의 적률상관 계수), 단순 회귀분석, 단계적 분석방법(stepwise)에 의한 중다회귀 분석을 하였다. 6세 경 변인 간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양육태도와 문제행동간 단순회귀분석을 하였고, 6세 경 양육태도와 문제행동 중, 7세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을 가장 잘 예측해 주는 변인을 알아보기 위해 단계적 회귀분석을 했다. 양육태도, 문제행동, 사회적 유능성 중 학교적응을 가장 잘 예측해 주는 변인을 알아보기 위해 단계적 회귀분석을 하였으며, 각 변인들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직·간접적 경로를 알아보기 위해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 결 과

#### 1.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태도와 아동의 문제행동,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 및 학교적응 간의 관련성

부정적 양육태도, 문제행동, 사회적 유능성과 학교적응 간 관련성을 살펴보기에 앞서 먼저 각 변인의 일반적인 경향을 분석하기 위해 각 변인과 그 하위영역 별 평균값을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에 제시하였고, 학교 적응과 각 변인들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여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에서 보듯이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태도는 문제행동과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r=.36, p<.01$ ), 문제행동 중, 외재화 행동( $r=.27, p<.05$ )과 내재화 행동( $r=.30, p<.05$ )에서 미약하게 정적 상관을 보였다. 또한 부정적 양육태도

는 학교적응의 하위 영역인 학교생활적응과도 미약하게나마 부적 상관을 보였다( $r=-.29, p<.05$ ). 문제행동은 사회적 유능성( $r=-.29$ )과  $p<.05$  수준에서, 학교 적응( $r=-.42$ )과는  $p<.01$  수준에서 부적 상관을 보였다. 각각의 하위 영역 간 상관을 보면, 외재화 행동은 사교성과 미약하게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 $r=-.29, p<.05$ ), 학교생활적응( $r=-.52$ ), 학업수행적응( $r=-.40$ ), 또래적응( $r=-.49$ )과는  $p<.01$  수

준에서 부적 상관을 보였다. 내재화 행동은 사교성( $r=-.34$ ), 대인적응( $r=-.31$ )과  $p<.05$  수준에서 부적 상관을 보였다. 미성숙 행동도 학교생활적응과 부적 상관을 보였다( $r=-.34, p<.05$ ).

### 6세 경,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태도와 문제행동간 관련성

6세 경 어머니의 부정적인 양육태도와 아동의

표 2. 양육태도, 아동의 문제행동과 사회적 유능성 및 학교적응 간 상관관계( $n=54$ )

	양육 태도	외재 문제	내재 문제	미성숙	문제 행동	사교성	대인 적응	사회 참여	주도성	인기도	사회적 유능성	학교 생활 적응	학업 수행 적응	또래 적응	교사 적응	학교 적응
양육 태도	1															
외재 문제	.271 *	1														
내재 문제	.297 *	.329 *	1													
미성숙	.212	.323 *	.244	1												
문제 행동	.357 **	.851 **	.723 **	.563 **	1											
사교성	-.131	-.285 *	-.344 *	-.065	-.350 **	1										
대인 적응	-.197	-.212	-.317 *	-.145	-.313 *	.690 **	1									
사회 참여	-.038	-.167	-.208	-.060	-.214	.732 **	.668 **	1								
주도성	-.083	-.095	-.251	-.011	-.177	.730 **	.634 **	.706 **	1							
인기도	-.042	-.170	-.254	.073	-.203	.735 **	.619 **	.602 **	.738 **	1						
사회적 유능성	-.113	-.216	-.317 *	-.049	-.291 *	.902 **	.831 **	.861 **	.879 **	.851 **	1					
학교 생활 적응	-.290 *	-.516 **	-.060	-.343 *	-.434 **	-.004	.064	.130	.036	-.082	.034	1				
학업 수행 적응	-.170	-.401 **	-.054	-.127	-.306 *	.014	.023	.073	.035	-.051	.022	.687 **	1			
또래 적응	-.203	-.493 **	-.204	-.236	-.458 **	.198	.232	.201	.132	.108	.202	.623 **	.635 **	1		
교사 적응	-.212	-.194	.040	-.037	-.111	.062	.035	.051	.033	.013	.046	.309 *	.511 **	.450 **	1	
학교 적응	-.266	-.515 **	-.089	-.248	-.422 **	.063	.097	.138	.066	-.023	.080	.867 **	.907 **	.817 **	.600 **	1

\*  $p<.05$ , \*\*  $p<.01$



문제행동 간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가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태도는  $p < .01$  수준에서 아동의 문제행동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예측변인이었다. 문제행동에 대한 부정적 양육태도의 설명력은 12.8%이었다. 부정적 양육태도는 문제행동의 하위영역 중 외재문제행동과 내재문제행동에 대해 유의미한 관련을 보였으나( $p < .05$ ) 미성숙한 행동과는 아무런 관련을 보이지 않았다.

### 6세 경,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태도 및 아동의 문제행동과 7세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 간 관련성

6세 경,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태도와 아동의 문제행동이 7세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회귀분석 결과에 의해 사회적 유능성과 각 하위영역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문제행동의 3개 하위영역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단계적 회귀분석을

하였다. 표 4에 제시되어 있듯이, 7세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에 대한 가장 예측력 있는 요인은 아동의 문제행동이었으며( $p < .05$ ), 8.5%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특히 문제행동 중, 내재화문제 행동이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에 부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p < .01$ ), 10.1%의 설명력을 보였다. 아동의 문제행동은 사회적 유능성의 하위영역 중 사교성( $p < .001$ )과 대인 적응( $p < .05$ )에도 부적 관련을 보였다. 사교성에 대한 문제행동의 설명력은 12.3%이며, 대인적응에 대한 설명력은 9.8%를 나타냈다. 또한 문제행동 중, 내재문제행동은 사교성과 대인적응에 부적 관련을 보였으며( $p < .01$ ), 사교성에 대해서는 11.8%, 대인적응에 대해서는 10.1%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 6세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태도, 아동의 문제행동 및 7세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과 학교적응 간 관련성

표 3. 양육태도와 문제행동 및 그 하위영역 간 회귀분석

종속변인	독립변인	R	R <sup>2</sup>	$\beta$	F
문제행동	부정적 양육태도	.357	.128	.357**	7.604**
	외재행동	.271	.074	.271*	4.130*
	내재행동	.297	.088	.297*	5.017*
	미성숙	.212	.045	.212	2.453

\* $p < .05$ , \*\* $p < .01$

표 4. 양육태도 및 문제행동과 사회적 유능성 및 그 하위영역 간 단계적 회귀분석

종속변인	독립변인	R	R <sup>2</sup>	$\beta$	F
사회적 유능성	문제행동	.291	.085	-.291*	4.824*
	내재문제행동	.317	.101	-.317*	5.820*
사교성	문제행동	.350	.123	-.350***	7.273***
	내재문제행동	.344	.118	-.344**	6.958**
대인적응	문제행동	.313	.098	-.313*	5.660*
	내재문제행동	.317	.101	-.317**	5.827**

\* $p < .05$ , \*\* $p < .01$ , \*\*\* $p < .001$

6세 경,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태도와 아동의 문제행동 및 7세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 중, 7세 학교적응에 대한 가장 설명력 있는 변인을 알아보기 위해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회귀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학교적응과 각 하위영역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문제행동의 3개 하위영역을 독립변인으로 단계적 회귀분석을 하였다. 표 5에 제시되어 있듯이, 초기 학교적응을 가장 잘 예측해 주는 변인은 아동의 문제행동이었다.

아동의 문제행동은  $p < .001$  수준에서 학교적응에 부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을 보였으며, 17.8%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특히 외재화 문제행동이 학교적응에 부적으로 영향력을 보였으며( $p < .001$ ), 26.5%의 설명력을 보였다. 문제행동은 학교적응의 하위영역과도 부적 관련을 보였는데, 학교생활적응과 또래적응에 대해서는  $p < .001$  수준에서, 학업수행적응에 대해서는  $p < .05$  수준에서 부적 관련을 나타냈다. 문제행동 중, 외재화 문제행동은 학교적응의 학위영역인 학교생활 적응( $p < .001$ ), 학업수행적응( $p < .01$ ), 또래적응( $p < .001$ )과 부적 관련을 보였다.

## 2. 학교적응에 대한 관련변인들의 직·간접적 인과모형

본 연구에서 설정한 인과모형에 따라 변인 간 관계성에 대한 직·간접적 경로를 알아보기 위해 경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양육태도, 문제행동, 사회적 유능성 및 학교적응 간의 직·간접적 경로에 대한 분석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각 경로에 대한 직접적 효과 및 간접적 효과에 대한 유의도는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각 변인 간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 대한 직접효과와 관련된 경로계수를 보면,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부정적일수록 문제행동은 증가했다( $\beta = .36, p < .05$ ). 아동의 문제행동이 증가할수록 사회적 유능성은 감소했으며( $\beta = -.29, p < .05$ ), 학교적응도 감소되었다( $\beta = -.39, p < .05$ ). 간접효과와 관련된 경로계수를 살펴보면, 양육태도는 학교적응( $\beta = -.133, p < .05$ )과 사회적 유능성( $\beta = -.103, p < .05$ )에 대해 간접효과를 보였다.

표 6에서 보듯이, 부정적 양육태도는 문제행동에 직접적으로, 학교적응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었다. 따라서 양육태도는 문제행동을 매개로 하여 학교적응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 문제행동은 사회적 유능성과 학교적응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사회적 유능성은 학교적응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했다. 양육태도가 문제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었고, 이런 문제행동이 사회적 유능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면서 양육

표 5. 양육태도, 문제행동 및 사회적 유능성과 학교적응 및 그 하위영역 간 단계적 회귀분석

종속변인	독립변인	R	R <sup>2</sup>	$\beta$	F
학교적응	문제행동	.422	.178	-.422***	11.268***
	외재문제행동	.515	.265	-.515***	18.731***
학교생활적응	문제행동	.434	.188	-.434***	12.043***
	외재문제행동	.516	.267	-.516***	18.907***
학업수행적응	문제행동	.306	.093	-.306*	5.354***
	외재문제행동	.401	.106	-.401**	9.983***
또래적응	문제행동	.458	.210	-.458***	13.824***
	외재문제행동	.493	.243	-.493***	16.710***

\*  $p < .05$ , \*\*  $p < .01$ ,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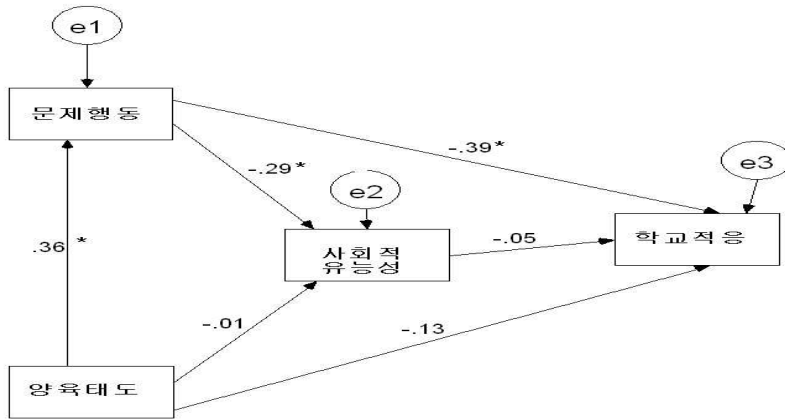


그림 2. 학교적응과 관련변인에 대한 직·간접적 경로

태도가 사회적 유능성에 매우 미약하게나마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

### 논 의

초기 학교적응은 아동기 주요 발달과제로, 이후 학령기의 전반적인 적응을 예측해 주므로 여러 연구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다(Brody, et al., 2002; Ladd & Troop-Gordon, 2003). 본 연구는 초기 학교적응과 관련된 변인을 단기 중단적으로 살펴봄으로써 학교적응에 가장 영향력 있는 변인을 탐색하고, 변인들의 직·간접적 인과 관계를 알아 보았다.

첫 번째 연구문제는 입학 전 6세 경,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태도와 아동의 문제 행동, 그리고 7세 경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과 학교적응 간 관련성을 알아보는 것이다. 우선 변인 간 상관을 보면, 부정적 양육태도와 아동의 문제행동이 그리고 문제행동은 학교적응이  $p < .01$  수준에서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이외에도 변인의 각 하위영역 간 상관을 부분적으로 보였다. 가령, 외재화 행동은 학교생활 적응, 학업수행적응 및 또래적응과  $p < .01$  수준에서 그리고 내재화 행동은 사교성과 대인적응과  $p < .05$  수준에서 부적 상관을 보였다. 부정적 양육태도가 학교생활적응과  $p < .05$  수준에서 부적 상관을 보였으나, 매우 미약했다.

표 6. 양육태도, 문제행동, 사회적 유능성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경로 효과

경로	→	변인	직접효과	간접효과	전체효과
		문제행동	.357*		.357*
양육태도	→	사회적유능성	-.010	-.103*	-.113
	→	학교적응	-.132	-.133*	-.266*
문제행동	→	사회적유능성	-.288*		-.288*
	→	학교적응	-.389*	.014	-.375*
사회적 유능성	→	학교적응	-.048		-.048

\*  $p < .05$

연구모형에 따라 변인 간 관련성을 순차적으로 3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첫 번째로 6세 경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태도가 아동의 문제 행동을 어느 정도 설명해 주는가를 알아본 결과, 12.8%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즉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적대적/공격적, 또는 무시, 통제, 비온정적일수록 아동의 문제행동은 증가되었다. 또한 어머니가 부정적 양육태도를 보일수록 외재화 문제 뿐 아니라 내재화 문제행동도 증가되었다. 이런 결과는 적대적이고 거부적인 양육행동이 외재화 문제 뿐 아니라 내재화 문제행동과 관련된다는 연구 결과(Kim et al., 2003)와, 엄격하고 과잉통제적인 부모 양육행동도 내재화 및 외재화 문제행동과 관련된다는 연구 결과들(Aunola & Nurmi, 2005; Keily et al., 2003)과 일치된다. 아울러 어머니의 양육이 방임적이거나 과반응적일수록 아동의 문제행동 수준이 높게 나타난 전수연(2002)의 연구 결과와 거부적이고 통제적인 양육 방식이 아동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손소영(2004)의 연구와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두 번째로, 6세 경 부정적 양육태도와 문제행동이 7세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알아본 결과, 학령 전 문제행동이 입학 후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에 대해 8.5% 예측력을 보였다. 표 4에서 보듯이, 문제행동은 사교성에 대해 12.3%, 대인적응에 대해 9.8%의 설명력을 보였다. 특히 내재화 문제행동은 사교성에 대해 11.8%, 그리고 대인적응에 대해 10.1%의 예측력을 가졌다. 즉 6세 때 문제행동을 많이 보인 아동들이 7세 때 사회적 유능성에서 감소를 보이는데, 특히 내재화 문제를 많이 보인 아동들이 사교성이나 대인적응에서 문제를 많이 보였다.

Raver와 Zigler(1997)에 의하면 사회적 유능감은 아동 자신이 속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신의 정체

성과 역할에 대해 학습하고 또래와 긍정적인 관계 내에서 잘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즉 현 연구 결과에서처럼, 내재화행동을 보이는 아동들은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사회적 관계에서 위축되어 또래나 또 다른 대상과의 관계에서 미숙하거나 서투른 행동을 보일 수 있다. 따라서 사교성이나 대인적응과 같은 영역에서 낮은 수준을 보일 수 있다. 이런 결과는 아동이 사회적 유능성을 발달시키지 못하면 문제행동 등의 적응 상의 문제를 가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Brody et al., 2002)와도 부분적으로 일치되는 경향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양육행동은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 발달에 어떤 영향도 주지 않았다. 이런 결과는 사회적 유능성은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발달된다(Hartup, 1983)는 입장과 일치되지 않는다, 또한 사회적 유능성은 학교적응에도 어떤 설명력을 보이지 않았다. 아마도 이제 막 입학하여 1학기를 보내면서 사회적 유능성의 하위영역의 여러 행동 특성들 중, 일부는 아동들이 많이 경험하지 않아서 측정에서 좀 더 정확히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아울러 본 연구는 6세 때 어머니 보고, 7세 때 아동면접, 그리고 아동의 각 담임교사의 보고로 변인을 측정하면서 모두 참여한 대상이 현저히 감소되었으므로, 통계적 유의미성을 이끌어 내는데 어려움이 있었음을 배제하지 않을 수 없다.

세 번째로, 부정적 양육태도, 문제행동 및 사회적 유능성이 학교적응과 어떤 관련을 보이는가를 알아보았다. 결과에 의하면, 학령 초기 학교 적응을 예측해 주는 가장 영향력 있는 변인은 6세 경 아동의 문제행동이었다. 문제행동 중, 특히 외재화 문제는 학교적응에 대한 설명력이 26.5%로 매우 강력한 예측요인이다. 아울러 문제행동은 학교적응의 하위영역인 학교생활적응과 학업수행적응, 또래 적응에도 부적 관련을 보였으며, 특히 외재문제행

동이 학교생활적응에 대해서는 26.7%, 학업수행적응에 대해서는 10.6%, 또래적응에 대해서는 24.3%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이처럼 문제 행동 중, 특히 외재문제행동이 학교적응과 하위영역인 학교생활 적응, 학업수행 적응 그리고 또래적응에 대해서도 매우 유의미한 예측력을 나타냈다. 본 연구에서 측정된 외재화 문제행동의 특징을 살펴보면, 또래를 괴롭히거나 심술을 부리고, 놀이 방해나 때리기 또는 깨물기, 시설을 부수거나 과 활동 및 목적 없이 계속 몸을 움직이고 성인에 대해 반항하거나 불복종 등이다.

따라서 6세 경 이런 행동 특성을 보이는 아동들이 초등학교 입학 후에도 학교생활 적응에 문제를 보이는 것은 당연할 수 있다. 또한 주의집중하지 못하고 잠시도 앉아 있지 못할 정도로 과 활동을 보이는 아동들이 입학 후 학업 수행 적응에 문제를 보일 수 있으며, 또래의 놀이를 방해하거나 때리고 깨물며 또래를 괴롭히는 아동들이 입학하여 또래적응에 심각한 문제를 보이는 것은 당연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에서 보듯이, 아동의 학교적응에 대한 담임교사들의 보고에 의한 평가가 학령 전 아동기 때 어머니에 의해 보고된 문제행동에 대한 평가와 매우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이를 통해 입학 전 아동의 행동 특성이 입학 후 초기 학교적응에 대한 영향력 있는 예측인임을 알 수 있다. 이런 결과는 유아기 행동문제가 이후 학령기(Campbell et al., 1996; Shaw et al., 1999) 혹은 성인기까지 지속된다는 연구 결과(Moffitt, 1993)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으며, 걸음마기 때 문제행동을 많이 보인다고 어머니에 의해 보고된 유아들이 만 6,7세경 교사에 의해서도 문제행동을 많이 보인다고 평가되었던 연구 결과(Leblanc et al., 2008)와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학령 전 아동기 문제행

동을 보인 아동의 16.6%가 초등학교 입학 후에도 일관되게 높은 수준의 문제행동을 보였다는 연구 결과(Cote et al., 2006)와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될 수 있다.

두 번째 연구 문제는 관련 변인들이 학교적응에 영향을 주는 직·간접적 경로를 알아보는 것이다. 결과에 의하면 6세 때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태도는 6세 아동의 문제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었다. 즉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부정적일수록 아동의 문제행동은 증가된다. 양육태도는 7세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에 간접적 효과를 보였으나 유의미한 정도는 아니었다. 또한 양육태도는 학교적응에 간접효과를 유의미하게 보였는데, 이는 양육태도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경로에서 문제행동을 매개로 하여 학교적응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음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면, 일학년 아동의 학교적응에 대한 가장 영향력 있는 예측변인은 학령 전 6세 아동의 문제행동이었으며, 특히 외재화 행동이 학교생활 전반에 걸쳐 영향력을 보였다.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태도가 문제행동에 영향을 주며, 이런 문제행동은 이후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주었다. 특히 내재화문제를 많이 보이는 아동들이 입학 후, 사교성이나 대인적응에서 문제를 보였다. 부정적 양육태도는 학교적응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았으나, 문제행동에 영향을 줌으로써 간접적으로 학교적응과 관련을 보였다.

이처럼 학령 전 아동기 문제행동과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태도는 입학 후 초기 학교적응에 직·간접적으로 밀접한 관련을 보였다. 특히 문제행동은 학교적응 뿐 아니라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으므로, 문제행동에 영향을 주는 변인에 대한 탐색이 각별히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이후에 진행되어야 할 연구 문제를 두 가지로 제시하면서 본 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한다.

첫 번째로, 본 연구 결과에서는 문제행동에 대해 부정적 양육태도가 12.8%의 설명력을 보였으므로, 문제행동에 영향을 주는 또 다른 변인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다. 이런 탐색에서 추출되는 요인들의 통제는 이후 학교적응과 관련될 수 있는 요인들을 간접적으로 통제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 두 번째로, 학교적응을 가장 잘 예언해 주었던 문제행동도 학교적응에 대한 설명력이 17.8%였다. 따라서 문제행동 이외의 초기 학교적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변인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이런 연구를 통해 제시되는 결과들은 학교적응과 관련된 변인을 예측하게 해줌으로써 이후 건전하고 건강한 학령기 적응의 기초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참 고 문 헌

고근중 (2006). 저소득 가정 아동의 사회적지지, 자아탄력성 및 학교생활적응의 관계.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승봉 (2005). 초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동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류윤석 (1996). 초등학교 도시전입학생의 학교생활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수정 (1998). 부모의 양육태도와 정서적 부적응 행동에 관한연구-아동의 지각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명성 (1998).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학교적응과의 관계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손소영 (2004). 취학 전 아동의 내재화·외현화 문제행동에 따른 기질 특성과 부모 양육태도의 차이.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유선이 (1999). 아동의 우정지각과 학교적응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윤영란 (2005). 어머니 정서표현성과 자녀 통제 및 유아의 자기통제.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전수연 (2002). 삼세대 가족관계 경험과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이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지성애, 정대현 (2006). 초등일학년용 학교적응 척도 타당화 연구. 아동학회지, 27(1), 1-15.

차유림 (2001). 아동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한미라 (1997).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 스트레스 및 학교생활 부적응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한미현 (2005). 어머니의 대상관계 수준과 양육행동이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황혜정 (1998). 취학전 아동행동목록표 기준점수의 문화적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1(2), 154-165.

Aunola, K., & Nurmi, J. E. (2005). The Role of parenting style in children's problem behavior. *Child Development*, 76(6), 1144-1159.

Barbara, M. B., & Martha, J. G. (1999). School Adaptation: A Triangular Process.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36(2), 345-370.

- Barbe, W. B. (1983). *The Exceptional Child*. New York: The Center For Applied Research in Education.
- Brody, G. H., Murry, V. M., Kim, S., & Brown, A. C. (2002). Longitudinal pathways to competence and psychological adjustment among african American children living in rural single-parent households. *Child Development, 73*(5), 1505-1516.
- Bronfenbrenner, U. (1979).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Experiment by nature and design*.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Campell, S. B., Pierce, E. W., Moore, G., Marakovitz, S., & Newby, K. (1996). Boy's externalizing problems at elementary school : Pathways from early behavior problems, maternal control, and family stress. *Developmental and Psychopathology, 8*, 701-720.
- Cote, S. M., Vaillancourt, T., LeBlanc, J. C., Nagin, D. S., & Tremblay, R. E. (2006). The development of physical aggression from toddlerhood to pre-adolescence: A nation wide longitudinal study Canadian Children.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4*, 71-85.
- Cowen, E. L., Work, W. C., & Wyman, P. A. (1997). In S .S. Luthar, J. A. Burack, D. Cicchetti, & J. R. Weisz(Eds.) *Developmental psychology: Perspectives on adjustment, risk, and disorders* (pp.527-547). New York: Cambridge.
- Deater-Deckard, K. (2001). Annotation: Recent research examining the role of peer relationships in the development of psychopathology.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and Allied Disciplines, 42*, 565-579.
- Dekovic, M., & Janssens, J. M. (1992). Parent's child-rearing style and child's sociometric status. *Developmental psychology, 28*, 92-932.
- Ford, M. E. (1982). Social cognition and social competence in adolescence. *Developmental Psychology, 18*(3), 323-340.
- Frosch, C. A., & Mangelsdorf, S. C. (2001). Parital behavior, parenting behavior, and multiple reports of preschooler's behavior problem: Mediation or moder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37*, 502-519.
- Garnezy, N., & Masten, A. (1991). The protective role of competence indicators in children at risk. In E. M. Cummings, Lifespan developmental psychology: Perspectives on stress and coping (pp. 151-176).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 Hart, C. H., Dewolf, D. M., & Burts, D. C. (1992). Linkages among preschoolers' playground behavior, outcome expectation and parental disciplinary style. *Early Education and Development, 3*, 265-283.
- Hartup, H. W. (1983). Peer relations. In E. M. Hetherington(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4. Socialization, personality and social development*(4th ed.)(pp. 103-196). New York: Wiley.
- Heck, A. O. (1983). *The Education of Exceptional*

- Children*. New York: McGraw-Hill Book.
- Hernandez, M. J. (1993). *Social decision-making skills: a curriculum guide for the elementary grades*. Rockille, MD: Aspen.
- Hofstra, M., van der Ende, J., & Verhulst, F. C. (2002). Children and adolescent problems predict DSM-IV disorders in adulthood: A 14-year follow-up of a Dutch epidemiological sample.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41*, 182-189.
- Kauffman, J. M. (1997). *Characteristics of emotional and behavioral disorders of children and youth(6th ed)*. New Jersey: Prentice Hall, Inc.
- Keily, M. K., Lofthouse, N., Bates, J. E., Dodge, K. A., & Pettit, G. S. (2003). Differential risks of covarying and pure components in mother and teacher reports of externalizing and internalizing behavior across ages 5 to 14. *Journal or Abnormal Child Psychology, 31*, 267-283.
- Kim, I. J., Ge, X., Brody, G. H., Conger, R. D., Gibbons, F. X., & Simons, R. L. (2003). Parenting behaviors and the occurrence and co-occurrence of depressive symptoms and conduct problems among African American children.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7*, 571-583.
- Ladd, G. W., Kochenderfer, B. J., & Coleman, C. C. (1996). Friendship Quality as a predictor of young children's early schoo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7*(3), 1103-1118.
- Ladd, G. W., & Troop-Gordon, W. (2003). The role of chronic peer difficulties in the development of children's psychological adjustment problems. *Child Development, 74*(5), 1344-1367.
- Leblanc, N., Boivin, M., Dionne, G., Brendgen, M., Vitaro, F., Tremblay, R. E., & Perusse, D. (2008). The development of hyperactive-impulsive behaviors during the preschool years: The predictive validity of parental assessment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6*, 977-987.
- Losoya, S., Eisenberg, N., & Fabes, R. (1998). Developmental issues in the study of coping.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2*, 287-313.
- Masten, A., & Coatsworth, J. D. (1998). The development of competence in favorable and unfavorable environments: Lessons from research on successful children. *American psychologist, 53*(2), 205-220.
- McGuire, J., & Richman, N. (1988). *The preschool behavior checklist handbook*. UK: NFER-NELSON.
- Mesman, J., & Koot, H. M. (2001). Early preschool predictors of preadolescent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DSM-IV diagnose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40*, 1029-1036.
- Miner, J. L., & Clarke-Stewart, K. A. (2008). Trajectories of externalizing behavior from age 2 to age 9: Relations with gender, temperament, ethnicity, parenting, and rater.



- Developmental Psychology*, 44, 771-786.
- Moffitt, T. E. (1993). Adolescence-limited and Life-course-persistent antisocial behavior: A Developmental taxonomy. *Psychological Review*, 100, 674-701.
- Parker, G. (1983). *Maternal overprotection: A risk factor in psychosocial development*. New York: Grune & Stratton.
- Prior, M., Smart, D., Sanson, A., & Oberklaid, F. (2001). Longitudinal predictions of behavioral adjustment in pre-adolescent children. *Australian and New Zealand Journal of Psychiatry*, 51, 732-739.
- Rapee, R. M. (1997). Potential role of childrearing practices in the development of anxiety and depression. *Clinical Psychology Review*, 17, 47-67.
- Raver, C. C., & Zigler, E. F. (1997). Social competence: An untapped dimension in evaluating Head Start's Success.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12, 363-385.
- Rohner, R. P. (2005). Parental Acceptance-Rejection Questionnaire (PARQ): Test manual. In R. P. Rohner & A. Khaleque (Eds.), *Handbook for the study of parental acceptance and rejection* (4th ed., pp. 43-106). Storrs, CT: Rohner Research Publications.
- Rohner, R. P. (1991). *Handbook for the study of parental acceptance and rejection*. University of Utah Press.
- Rubin, K. H., Cheah, C. S. L., & Fox, N. A. (2001). Emotion regulation, parenting and display of social reticence in preschoolers. *Early Education and Development*, 12(1), 97-115.
- Rubin, K. H., Booth, C., Rose-Krasnor, L., & Mills, R. (1995). Social relationships and social skill: A conceptual and empirical analysis. In S. Shulman(Eds.), *Human development: Vol. 7, Close relations and socio-emotional development* (pp.63-94). Norwood, NJ:Ablex Publishing Corporation.
- Rubin, K. H., & Mill, R. S. (1990). Maternal beliefs about adaptive and maladaptive social behaviours in normal, aggressive, and withdrawn preschooler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8, 419-435.
- Shaw, D. S., Owens, E. B., Giovannelli, J., & Winslow, E. B. (2001). Infant and toddler pathways leading to early externalizing behavior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40, 36-43.
- Shaw, D. S., Winslow, E. B., & Flanagan, C. (1999). A prospective study of the effects of marital status and family relations on young children's adjustment among African and Caucasian Families. *Child Development*, 70, 742-755.
- Stipek, D., Feiler, R., Byler, P., Ryan, R., Milburn, S., & Salmon, J. (1998). Good beginnings: What difference does the program make in preparing young children for school?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19, 41-66.
- Williams, S., Anderson, J., & McGee, R. (1990). Risk factors for behavioral and emotional

disorders in preadolescent children,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29, 413-419.

---

1차 원고 접수: 2010. 04. 08

수정 원고 접수: 2010. 05. 14

최종 게재 결정: 2010. 05. 15

# The Investigation on the School Adjustment of the Children in the First Grade: Short-term and Longitudinal Approach

Su-Chung Kim  
The Center for Social Sciences  
Seoul National University

Keumjoo Kwak  
Department of Psych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factors that may affect early school adjustment and their direct and indirect causal relationships. The subjects were 54 triplets of 6 year old children, their mothers, and classroom teachers. During children's age at 6, the problem behaviors and parenting attitudes were measured using mothers' reports. The 7 year old children's social competence was measured using direct interviews and school adjustment was measured via teachers' reports. Correlation, simple and stepwise regression, and path analyses were conducted based on these reports. The results showed that preschoolers' problem behaviors predicted school adjustment of the first graders the most. The mother's negative parenting attitudes explained most well the children's problem behaviors best predicted children's social competence. The internalizing behaviors were negatively related with social competence and its lower-order dimensions of sociability and interpersonal adjustment. Externalizing behaviors showed negative relationships with school adjustment and its lower-order school life adjustment, academic performance, and peer adjustment. The direct and indirect paths analyses of these factors showed that the indirect negative effects of parenting attitudes on school adjustment was mediated by problem behaviors.

*Keywords:* school adjustment, parenting attitude, problem behavior, social competency